

# 내가 걸어온 역사학의 길

인문대학 국사학과 한 영 우

## 1. 양해를 구하며

나는 한국식 나이 75세로 아직 과거를 회고할 나이도 아니고, 금년에도 「울곡 이이평전」과 200자 원고지 약 1만 2천 매 분량의 「과거, 출세의 사다리 - 족보를 통해본 조선시대 문과급제자의 신분이동」(전 4권)의 집필을 완료한 상태이다.

아직은 현재 진행 중인 나의 연구시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이 자리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간보고도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 2. 나의 주요 저서

나는 주전공이 조선시대이고, 분야로 볼 때에는 사상사, 사학사, 신분사, 문화사 분야이다. 다만, 부수적으로 근현대 사상사와 사학사도 다루어 왔다. 각 분야의 주요 저서를 먼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상사 분야:** (1)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지식산업사, 1999), (2) 조선전기 사회사상연구(지식산업사, 1983), (3) 실학의 선구자 이수광(경세원, 2007), (4) 꿈과 반역의 실학자 유수원(지식산업사, 2007), (5) 조선 수성기 제갈량 양성지(지식산업사, 2008), (6) 한국선비지성사(지식산업사, 2010), (7) 울곡 이이평전 - 조선중기 최고의 경세가이자 위대한 스승(민음사, 2013년 1월 출간), (8) 행촌 이암의 생애와 사상(공저: 일지사, 2002), (9) 다시, 실학이란 무엇인가(공저: 푸른역사, 2007)

**2) 사학사 분야:** (1) 조선전기 사학사연구(서울대 출판부, 1981), (2) 조선후기 사학사연구(일지사, 1989), (3) 한국민족주의 역사학(일조각, 1994), (4) 역사학의 역사(지식산업사, 2002)

**3) 신분사 분야:** (1) 조선전기 사회경제연구(을유문화사, 1983), (2) 조선시대 신분사연구

(집문당, 1997), (3) 과거, 출세의 사다리 - 족보를 통해 본 조선시대 문과급제자의 신분이동 (지식산업사, 전4권, 제1권 2013년 1월 출간)

**4) 문화사 분야:** (1)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효형출판, 1998), (2) 조선왕조 의궤(일지사, 2005) \* 중국어번역본(2012. 10) \* 일어(일본 明石書店) \* 영어 \* 독일어 근간, (3) 조선의 집 동궐에 들다(효형출판, 2006), (4) 명성황후, 제국을 일으키다(효형출판, 2006), (5) 반차도로 따라가는 정조의 화성행차(효형출판, 2007), (6) 문화정치의 산실 규장각(지식산업사, 2008), (7) 우리 옛 지도와 그 아름다움(공저, 효형출판, 1999) \* 영어본: The Artistry of Early Korean Cartography(2008).

**5) 통사 분야:** (1) 다시찾는 우리역사(경세원, 1997년 초판, 2013년 50쇄) \* 일어번역본; 한국사회의 역사(일본 明石書店, 2003) \* 영어번역본; A Review of Korean History. vol.1-3 (translated by Hahm Jai-Bong, Seoul, 2010) \* 노어번역본; Korean History (translated by Mikhail Park, Moscow, 2010), (2) 간추린 한국사(일지사, 2011)

**6) 근현대사 분야:** (1)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인가(공저: 푸른역사, 2006), (2) 대한민국 60년 - 성찰과 전망(공저: 굿 소사이어티 편, 지식산업사, 2008), (3) 21세기 한국학, 어떻게 할 것인가(공저, 푸른역사, 2005)

**7) 에세이류:** (1) 한국의 문화전통(을유문화사, 1988), (2) 우리 역사와의 대화(을유문화사, 1991), (3) 미래를 위한 역사의식(지식산업사, 1997), (4) 역사를 아는 힘(경세원, 2005)

### 3. 나의 연구 편력

**1) 가정환경과 청소년기의 자조적 역사의식:** 돌이켜보면, 나의 학문편력은 내가 태어난 가정환경에서 원초적인 체질이 형성되고, 한국 현대사의 격동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나의 가문은 인조반정(1623) 이후 몰락하여 300년간 충청도 시골의 향반으로 살아온 전형적인 몰락양반이었다. 청주한씨는 조선왕조시대 5명의 왕비를 배출하고, 263명의 문과급제자를 배출한 대성 가운데 하나이지만, 우리 가문의 영광은 300년 전에 끝났다. 광해군 때 좌의정을 지낸 13대조의 정치경력이 우리 가문을 몰락시킨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하면서 충청남도 서산(瑞山)으로 낙향하게 된 것이다. 그 후손들이 동쪽마을을 형성하고 살던 해미면 바닷가의 농촌에서 자란 나는 서당훈장이셨던 백조부 밑에서 한학을 배우고, 조

부 밑에서 농사일과 양반의 엄격한 법도를 배우면서 성장했다. 그 시대는 일제강점기 말기이지만, 나의 생활과 사고는 근대문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조선시대 소년으로 머물러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1950)에 6·25전쟁(1950)을 경험하고, 1957년에 서울대 문리대 사학과에 입학한 나는 한국사에 관한 애정이 전혀 없었고, 서양사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은 과거와 현재가 모두 비참한 나라로서 한국인의 역사는 지워버리고 싶은 수치와 환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이순신과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을지문덕 등 현군이나 민족영웅에 대한 존경심은 가슴 속에 품고 살았을 뿐이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조선총독부가 홍보한 식민주의적 한국사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전쟁과 폐허의 암울한 시대에 자조적으로 왜곡된 역사지식이 쉽게 파고든 것이다.

**2) 4·19 이후의 민족주의적 역사의식:** 나의 패배주의적이고 자조적인 역사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4·19혁명(1960)이었다. 당시 대학 4학년이었던 나는 4·19를 전후하여 거세게 불어닥친 민족주의 열풍에 흠뻑 빠졌다. 그 바람은 소위 제3세계가 발원지였지만 직접적으로는 일본을 통로로 해서 들어온 것이었다. 특히 4·19 직후의 민주당정권 시절은 사상통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북한이나 중국 등 적대국의 소식도 붓물이 터진 듯 밀려들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비슷한 연배의 4·19세대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정서에 물들어 있었는데, 이 시기가 지금 돌이켜 보면 한국 현대지성사에 큰 획을 긋는 전환기였다고 생각된다. 마치 근대 독일의 질풍노도운동(Strum und Drang)과 비슷한 경험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대학의 은사이신 두계 이병도(斗溪 李丙燾) 선생의 문헌실증적 역사학의 방법론을 배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채호, 박은식 등 민족주의 역사가들의 저서에서 큰 자극과 감동을 받았다.

민족주의 열풍이 계기가 되어 대학원에서는 한국사를 택하게 되었고, 1967년에 문리대 조교를 거쳐 1970년에 문리대 교수가 되면서 조선시대사 전공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내가 조선시대를 택하게 된 것은 지도교수이신 서우 한우근(西牛 韓祐勗) 선생의 권고도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조선시대의 유교적 정서 속에서 자란 나의 체질과도 관련이 있었다.

내가 처음에 찾고 싶은 조선시대사는 주로 봉건사회를 극복하여 근대로 나가려고 노력한 실학(實學)이나 자본주의적 맹아의 성장에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체적(停滯的)이고 비자주적인 식민주의적 한국사관을 극복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또 이러한 정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역사학계가 지니고 있던 공통된 분위기가기도 했다.

**3) 이데올로기 역사학에 대한 반성:** 1970년대 이후로 나의 민족주의적 역사의식은 두 가지 요인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첫째는 조선시대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조선 = 봉건사회>의 신화가 깨지기 시작했고, 혈연적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고전적 민족주의 신화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좌우의 이데올로기적 역사의식에 대한 회의가 생기면서 한국사

상(韓國史像)을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정립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연구를 진행할수록 조선시대를 봉건사회로 보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단일민족을 강조하거나 위대한 고대사를 강조하는 민족주의 역사학도 조선시대의 사회발전이나 정신적 진보를 무시하는 퇴보적인 역사해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 시각을 바꾸게 한 또 한 가지 요인은 군부정권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와 근대화정책이 가져온 빛과 그늘에 대한 자신감과 반성이었다. 1970년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북한 및 공산권의 경제적 침체와 정치적 독재는 유물사관적 역사해석방식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가를 깨닫게 했으며, 군부정권의 인권탄압과 권위주의적인 통치는 도덕성과 민주성을 상실한 근대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동시에 각성시켜 주었다.

위와 같은 변화된 의식 속에서 내가 탐구한 것은 <봉건적>이라고 매도된 조선사회와 그 사회를 지탱한 성리학(性理學)에 대한 재평가였다. 다시 말해 조선사회는 처음부터 서양 봉건사회와 비교할 때 그보다 한층 진화된 사회였으며, 이를 지탱시켜 준 성리학도 결코 봉건적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시각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 연구업적이 바로 앞에 소개한 사상사와 신분사, 그리고 사학사에 관한 저서들이다.

나의 저서에는 <봉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일이 없으며, 조선후기 사회를 근대지향으로 바라보기는 했어도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사회를 지향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사유재산제도나 시장경제적 요소는 이미 조선초기부터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토지나 모든 산업에 대한 공개념(公概念)이 발달하여 서구식 자본주의로 나가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바로 이 점이 서구사회와 다르고, 또 유물사관에서 말하는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한다는 도식(圖式)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장경제적 요소와 반(反)시장적 공개념이 복합된 경제구조가 바로 조선경제의 특징으로 이해되었다.

이밖에도 조선사회가 봉건사회일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더 있었다. 첫째, 법률로 정해진 세습적 특권층이 없다는 것이고, 노비를 제외한 양인층(良人層)에서 시험에 의해서 엘리트 관원이 충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제도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마치 양반특권층이 따로 있어서 이들이 세습적으로 관원이 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는 실증적인 통계수치에 의해서 증명된 일이 없다. 기왕의 잘못된 통설에 대해 필자는 「조선왕조실록」과 「문집」의 기록 등을 통해 반박해 왔는데, 나의 주장을 구체적 통계수치로 탐구한 것이 바로 위에 소개한 필자의 「족보를 통해 본 조선시대 문과급제자의 신분이동」이다. 여기서 그 요지를 간단히 소개하면, 15세기는 급제자의 40~50%가 양반이 아닌 하급신분층이고, 16세기는 그 수치가 20~30%대로 떨어지고,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는 다시 20% 이하로 내려갔다가 18~19세기에 40~50%대로 회복되고, 19세기 중엽의 고종대에는 거의 60%대로 다시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조선시대에는 봉건적 토지소유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모든 토지는 개인 사유지이며, 다만 그 수조권(收租權)이 국가로 가면 공전(公田)이고, 국가기관으로 가면 공해전(公廩田, 屯田) 등으로 불렸으며, 관원에게 가면 과전(科田) 또는 사전(私田), 또는 공신전(功臣田) 등

으로 불렸을 뿐이다. 다만 과전=사전은 16세기 중엽에 없어져서 관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녹봉으로 일원화되었다. 봉건영지(封建領地)라는 것은 조선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다.

셋째, 권력구조와 정치운영이다. 조선왕조는 권력집중과 권력분산을 교묘하게 배합하여 국왕세습을 인정하고,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사다리형 권력구조를 구성하여 군신공치(君臣共治)의 이상을 추구하되, 국왕이나 관원이나 누구도 전제(專制)할 수 없고 누구도 특권화할 수 없도록 치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삼사(三司; 홍문관(弘文館),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의 언론활동이 최대로 보장되고, 공론(公論)과 여론이 존중되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국민투표에 붙이기도 하고, 서울 시민(市民)의 의견을 직접 듣기도 했다. 세종이 전세제도를 개정하면서 17만명의 찬부를 물은 것은 국민투표의 선구라고 볼 수 있으며, 영조와 정조는 수시로 서울시민을 궁궐 밖에서 만나 의견을 청취한 일이 비일비재했다. 일반백성의 상소나 격쟁상언(擊錚上言)이 보장되고, 국왕의 평생교육체제인 경연제도(經筵制度)를 실시하여 국왕을 성인(聖人)의 경지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상피제도(相避制度)라 하여 출신지역으로 수령을 임명하지 않고, 친족이 응시할 때 고시관(考試官)을 피하고, 친족과 같은 관청에 임명하지 않았다. 대간(臺諫; 사헌부와 사간원)이 관리의 임명을 심사하여 국왕의 인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서경제도(署經制度), 국왕의 8촌 이내 왕족의 관원 임명을 금지하는 것 등은 관료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정치의 거울을 만들어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 신뢰성을 높이려는 기록문화의 발달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왕조의 종합적 통치행위를 일기체로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국왕 비서기관인 승정원의 일기인 「승정원일기」, 국가의 주요 의례(儀禮)인 오례(五禮; 吉, 嘉, 喪, 賓, 軍)에 관한 행사보고서인 「의궤(儀軌)」, 국왕의 일기인 「일성록(日省錄)」 등 통치자료들이 지금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이런 류의 기록문화는 중앙집권적 관료정치를 경험하지 못했던 중세기의 서양이나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의식의 장면과 도구들을 천연색으로 그려 넣고, 행사의 진행과정과 비용,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노동자의 이름과 품값, 거주지, 그리고 행사참여자가 먹은 음식 메뉴와 레시피까지 세밀하게 적어놓은 「의궤」는 문자기록과 영상자료를 합쳐 놓은 것으로 정밀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다음에 조선사회를 정신적으로 지탱해준 성리학은 봉건적 사유와는 거리가 멀다. 성리학은 형이상(形而上)의 세계와 형이하(形而下)의 세계를 이(理)와 기(氣)로 나누어 설명하지만, 이 둘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형이상의 세계와 형이하의 세계는 둘인 듯하면서 하나이고, 하나인 듯하면서 둘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주만물의 차이를 경험적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천지인(天地人)에 내재되어 있는 공통적 원리를 찾아서 이성적 선(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神)과 인간을 수직적으로 바라보는 서양 중세기의 기독교적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한국사에 있어서 왕을 신(神)으로 바라본 것은 상고시대의 신화적 세계관에서 그치고 있다. 적어도 조선시대에는 초월적 신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으며, 왕권도 신수설(神授說)로 설명한 일이 없다. 유교적 이상군주인 성인(聖人)은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도덕적 인격자일 뿐이지 신성불가침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래서 왕을 통치자인 동시에 스승으로 보는 군사(君師)의 군주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국왕은 도덕성을 상실할 때 얼마든지 백성에 의해서 폐위될 수 있는 선택적 권력자일 뿐이었다. 조선시대 두 차례에 걸친 반정(反正)이 그래서 가능한 일이었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천지인을 하나의 통일체로 바라보는 철학은 이미 상고시대의 무교(巫敎)에서 시작하여 불교문화와 유교문화를 거치면서 그대로 계승되고 진화되었다. 여기서 한국의 건축, 음악, 회화, 무용, 정원 등 모든 예술은 천지인이 하나라는 것을 표현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산수화에는 천지인을 모두 담고 있으며, 춤은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몸짓이며, 범종(梵鐘)은 하늘의 소리를 담는 음관(音管)과 땅의 소리를 담는 음통(音筒)을 구비하고 있어 중국이나 일본 종과 다르다.

천지인을 도형(圖形)으로 이해할 때에는 원방각(圓方角; ◯□△)으로 표현했다. 훈민정음의 자음(子音)이나 모음(母音)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방각도형을 응용한 것이며, 한국의 미술이 곡선을 사랑하고 있는 이유도 둥근 하늘에서 차용한 것이다. 바로 이런 비슷한 생각을 서양건축에 도입한 사람이 스페인의 Antonio Gaudi라고 할 수 있다.

또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셋[三]이라는 숫자를 유달리 선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인들은 몇 개는 <三>이라고 말하고, 많은 것은 <三千>이라고 말하고, 매우 많은 것은 <三萬>이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다. 한국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檀君神話)는 三을 기본으로 설정한 이야기다. 삼신(三神; 桓因, 桓雄, 檀君), 삼신(三臣; 風伯, 雨師, 雲師), 천부인(天符印) 세 개, 솔도삼천(率徒三千), 삼위태백(三危太白), 삼칠일(三七日; 21日)의 등장이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천지인이 하나가 될 때, 즉 三이 하나로 합쳐질 때 가장 위대한 힘이 발생한다. 그래서 <一>을 <하나> 즉 <크다>고 말한다. <한국>도 <큰 나라>의 뜻이다.

<三이 합치면 一이 된다>는 철학은 공동체 정신을 의미한다. 단군신화에서 <홍익인간>을 건국이념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공동체윤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윤리가 국가운영의 정치철학으로 승화되면서 공익정치(公益政治)로 구현된 것이다.

필자는 고조선에서 시작하여 삼국, 고려, 조선으로 이어져온 국가운영 철학을 공익정치의 진화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그 주체세력을 고유어인 선비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신을 선비정신, 선비문화로 부르고 있다. 필자가 집필한 「한국선비지성사」는 바로 선비정신의 진화과정을 고조선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선비정신은 현재 한국인의 핏속에 유전인자로 자리잡고 있다고 해석했다.

필자가 1997년에 초판하여 지금까지 50쇄를 발간한 「다시 찾는 우리역사」는 앞에 언급한 필자의 선비정신과 선비정치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진화과정을 재구성한 것이다. 그래서 고조선

과 삼국시대를 귀족사회, 고려시대를 반(半)귀족-반(半)관료제사회, 조선시대를 관료제사회, 대한제국을 전통적 정치질서와 서구식 근대기술문화를 조화시킨 근대국가로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 구성한 한국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노예제-봉건제-자본제의 도식적 패러다임과는 다르며, 기왕의 통사류가 조선시대를 양반귀족사회로 이해하고, 대한제국을 수구반동국가로 이해한 것보다도 판이하게 다르다.

#### 4. 21세기와 동서문명의 접목

과거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설계하느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역사학은 아무런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있는 사실(事實)을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레오폴트 폰 랑케(Leopold von Ranke)의 실증적 태도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주장한 에드워드 헨릿 카(E.H. Carr)의 견해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나간 시대의 사관(史觀)인 민족주의나 계급주의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한계가 있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인류평화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이런 류의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이미 시대착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류의 공동선(共同善)과 국제평화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까지도 버린다면 역사학은 공허한 금고 속의 보석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특히 21세기는 인류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문명의 대전환기에 서 있다고 본다. 산업혁명 이후 2~3백년간 지속되어 왔던 서구중심의 세계질서도 급속하게 무너지고, 중국, 일본, 한국의 위상이 중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적 가치를 유일한 절대선(絕對善)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동서 문명 간 대화와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명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서구 이외 국가들의 비약적 성장은 서구적 가치와 과학기술의 수용으로 촉진된 측면, 즉 서구화의 결과라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개체를 존중하고, 개체간의 경쟁을 통한 변증법적 발전을 추구하는 서구적 윤리는 개인의 인권을 성장시키고, 생존경쟁 능력을 키워주는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다. 또, 우주자연의 이치를 독립된 실체로 해석해 온 서양의 과학과 기술문명은 산업혁명을 유발하고, 나아가 오늘날 무섭게 발달한 디지털문명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음도 사실이다.

하지만, 서구문명은 과학기술의 무한진보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 역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변증법은 그 안에 대립과 갈등을 전제로 한 지양이 강조되고 있어서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기독교정신이 상대와 약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측면도 있지만, 그 속에는 선악의 대립이 전제되고, 투쟁을 통한 해결방법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사고가 절대선으로 인정되면 대립, 갈등, 투쟁, 약육강식, 정복 등은 피할 수 없는 인류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동양문명, 특히 무교, 불교, 유교를 공유해 온 동아시아문명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천지인을 하나의 상생적 통일체로 바라보면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그것이 개체의 성장이나 기술문명의 진보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갈등, 투쟁, 전쟁, 정복 등 평화를 해치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효과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천지인 합일사상은 자연과 생명에 대한 애정을 자극한다. 인류를 하나의 상생공동체로 생각하는 홍익인간 이념도 오늘날의 이념갈등이나 국제적 분쟁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필자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개체를 존중하는 서구문명과 공동체를 존중하는 동양문명을 양자택일적 시각에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 두 문명을 대승적으로 합쳐서 새로운 21세기형 신문명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발전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희망을 여기서 찾아보자는 것이다.

## 5. 법고창신의 한국사

앞에서 제기한 필자의 문제의식은 한국사 해석에서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논리로 이어지고 있다. 인류문명은 교류하면서 합쳐지고 합쳐지면서 진화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바로 법고창신이다. 각 민족이 살아온 특수한 자연환경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원초적 토착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진화된 외래문명을 접합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한국사의 전개과정을 앞에서 선비정신과 선비사회의 진화과정으로 설명했지만, 그 진화의 방법이 바로 법고창신이었다고 나는 본다. 무교가 우리가 살아온 자연환경에서 배태된 토착문화라면 불교나 유교는 무교보다 한 단계 진화된 외래문화로서 수용된 것이다. 물론, 산동지방에서 성립된 유교(儒敎)는 그곳 토착주민인 동이족(東夷族)의 아름다운 풍습과 중국인이 세운 주(周)나라 문명에 감동을 받은 공자(孔子), 맹자(孟子)에 의해 이론화되었기 때문에 동이족의 후예인 한국인들이 유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외래문화의 수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어쨌든 불교와 유교를 수용했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체질화된 무교를 바탕으로 삼아 수용된 것이었으므로, 한국인의 핏속에는 무불유(巫佛儒)가 중층적으로 합쳐진 문화적 DNA를 가지고 있다고 나는 본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체질이자 국민성이며, 그 체질의 차이가 중국문화나 일본문화와 비슷하면서도 독자적 특색을 지닌 민족문화를 발전시켜 왔다고 본다.

한국의 근대화도 마찬가지로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 대한제국이 구본신참(舊本新參)을 내걸고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서양의 과학기술문명을 절충하여 근대국가로 탄생했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일본의 명치유신도 화혼양재(和魂洋才)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한국은 유교적 국왕중심체제를 구본(舊本)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천



황(天皇)과 막번체제(幕藩體制)의 이중적 권력구조의 전통이 한국과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무교적 성격이 강한 신도(神道)를 국가종교로 설정한 것도 한국과 다르다. 다시 말해 한국이 유교전통 속에서 법고를 추구했다면, 일본은 불교와 신도 전통 속에서 화혼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법고창신의 논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면, 고려는 고구려의 전통과 영광을 법고(法古)하면서 선진적인 송나라 문화를 수용하여 창신(創新)했으며, 조선왕조는 고조선의 영광과 삼국, 고려의 전통문화를 법고하면서 명나라 문화를 수용하여 창신했고, 조선후기에는 청나라 문화를 수용하려는 실학(實學) 운동을 통해 또 한번 창신하여 18세기의 왕조중흥을 가져왔다. 대한제국도 삼국(三國)의 광대한 영토를 아우르는 대제국의 재건과 앞에서 말한 유교전통을 법고로 삼으면서 서양문명을 접목시켜 최초의 근대국가를 성립시킨 것이다.

여기서 법고창신으로 이어져온 한국의 정치문화를 외국인들은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원전 5세기에 공자(孔子)는 고조선을 군자국(君子國)으로 부르고 고조선으로 이민오고 싶어했다는 말이 논어(論語)에 보이며, 당송 이후로는 한국을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으로 불렀다. 근대에 와서도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하면서도 조선의 교육열을 배우자고 말했다. 1866년에 강화도를 점령한 프랑스 군인도 조선인의 교육열과 농촌가옥에 책이 많은 것을 보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보고한 일도 있었다. 개화기의 어느 서양인은 <중국을 상인의 나라>, 일본을 <무사의 나라>로 부르면서 조선을 <학자의 나라>로 불러 동양 삼국의 특징을 비교하기도 했다. 물론, 위에 언급한 말들은 모두 한국을 좋게 본 것만을 예로 들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나쁘게 말한 것만 가지고 한국의 이미지를 규정하려는 태도도 합리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6. 한국근대사의 불행과 미래의 전망

그러면, 근대 한국의 불행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나는 그 이유를 서양과의 접촉이 늦어진 데서 찾고 싶다. 즉,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근대 서양문명을 받아들여 창신할 기회를 가장 늦게 가졌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왕조의 쇠국정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15세기말 이후로 서양이 이른바 지리상의 발견으로 아시아에 진출하면서 한국만을 교류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이 서양을 피한 것이 아니라 서양이 조선을 피한 것이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북경사행을 통해 서양문명을 간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을 뿐 직접 서양인을 만난 것은 17세기 초에 표류해온 네덜란드인 벨테브레(Weltevree)와 하멜(Hamel) 일행 뿐이었다. 조선왕조는 이들을 통해 신무기 개발에 노력하는 등 나름대로 우대했다. 다만, 하멜 일행을 탈출하도록 만든 것은 신무기개발을 눈치챈 청나라의 외교적 압력 때문이었다.

서양이 직접교류를 목표로 한국에 들어온 것은 1866년과 1872년이 처음인데 이 때 들어온

프랑스와 미국은 이미 군함과 대포를 끌고 온 제국주의 국가였다. 이 때는 이미 평화적인 서세 동점시대가 아니었다. 대원군이 전쟁으로 이들을 물리치고 10년간 쇄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아들 고종이 집권하면서 일본과는 물론이고, 1880년대에는 서양 열강과 모두 교류를 맺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창신(創新)은 이미 300년이나 앞서 서양과 교류하여 힘을 비축한 일본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것이 결국 한국 강점이라는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한일(韓日) 두 나라의 역사를 거시적으로 비교하면, 기술문명과 산업화는 일본이 조선을 크게 앞선 것이 사실이지만, 정치문화는 조선왕조가 앞서 왔다. 일본의 유교는 정치제도와 사회제도를 바꿀 정도의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여, 조선왕조와 같은 중앙집권적 관료정치와 과거제도를 통한 신분이동을 촉진시키고, 세련된 문치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치(文治)와 무치(武治)의 기본적인 전통의 차이 때문에 일본의 평민들은 인생의 꿈을 정치적 출세에 두지 않고 자신의 생업에 쏟아 천하제일의 물품을 만드는 장인정신을 키워왔고, 정치지도층인 무사집단에 대한 복종을 통해 겸손하고 순종적인 예의를 키워왔다고 보인다.

과거제도와 관료정치, 그리고 문치전통이 고도로 발달한 조선왕조는 일본과 반대로 보통사람의 꿈을 정승과 판서로 출세하는데 집중시키고, 그것을 얻기 위한 치열한 교육열과 성취욕을 부추겼다. 그래서 자기 생업에 올인하는 장인정신은 소수의 장인(匠人)에게만 이어져 오고, 그런 전통이 산업화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치열한 교육열과 성취욕 그 자체는 산업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특히 유교가 지닌 통합적 교양정신, 예컨대 문학, 역사, 철학, 정치, 경제, 사회 및 자연과학과 예술을 아우르는 폭넓은 인문적 교양은 비록 그 내용이 현대 학문과는 다를지라도 학자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런 전통이 현대적으로 되살아난다면 지식정보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21세기에는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현대 한국이 지식정보화 분야에서 세계의 선진대열에 올라 있는 이유도 이러한 전통의 유산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에 학계에서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분과학문의 벽을 허물고, 학문간 협동 또는 통섭적 학문으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러한 통합학문의 선구를 유교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며, 그런 점에서 유교문화를 적극적으로 지켜 온 나라들이 미래의 경쟁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 글은 2012년 10월 26일(금) 오후에 일본 동경 호텔아시아회관에서 개최된 제12회 한일역사가학회의에서 〈역사가의 탄생〉이라는 기조강연에서 한국을 대표하여 발표한 글을 요약한 것이다. 일본측에서는 荒井新一 명예교수가 〈역사가의 탄생〉에 대한 기조강연을 하였다. 한일역사가학회의는 두 나라의 외교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26일에 시작하여 10월 28일에 끝났다.